

# 전기자동차 생산업계 새만금에 둥지

나노스, 전북도·군산시·개발청 등과 투자협약 체결  
내년부터 5년간 1200억원 투자·1000명 신규 고용키로

전북도는 지난 20일, 도청 접견실(4층)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나노스(주) 양선길 대표이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이승복 군산부시장, 강병문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 내용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기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은 차질 없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전북도, 군산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협조를 다하기로 상호 협약했다.

나노스(주)와 투자협약 체결은 지난 16일 본사와 공장을 익산으로 이전하여 1,000억원을 투자하고 300명 고용을 창출하는 농협케미컬 투자에 연이어서 나온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이다.

## 군산시,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공모사업 3곳 선정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18년 들녘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 추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법인체 3개소가 모두 선정됐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공동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생김들친환경영농조합법인, 옥구원활합보리영농회, 수빈농장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3억7천2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법인은 범용콤바인 2대, 트랙터 2대, 공정선거 1대, 공동육묘장 1동을 지원 받게 돼, 농기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광석 농정과장은 "들녘경영체 중심의 공동영농은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되는 쌀 과잉공급도 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다른 작물 전환 유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협력업체(164개) 직원의 간접적인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전북은 김제 백구농공단지에서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 군산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전기자동차 관련 R&D 및 정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등이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장차 및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전문가들은 "세계 대기환경 오염 해소를 위해서는 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 특장차, 농기계 등에도 전기차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북도는 상용차 제조기업인 현대상용차(완주), 타타대우(군산), 농기계 제조기업인 동양물산(익산), LS엔트론(완주), 특장차 기업인 효룡(김

제), 건설기계 제조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군산)가 입주해있으므로 전기자동차 및 특장차 산업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로서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인 나노스(주)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과 빠른 시일 내에 공장 건설 및 완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이 함께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명실상부 전북도가 특장차 및 전기자동차 생산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와 익산시 전국체전담당관 등 전국체전 체육관계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중앙 및 시도 체육관계관 회의'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익산 힐트코트에서 열렸다.

## 성공적인 체전 개최 의지 다짐

전북 개최 전국체전 대비 중앙·시도 체육관계관 회의

전라북도도와 익산시 전국체전담당관 등 전국체전 체육관계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중앙 및 시도 체육관계관 회의'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익산 힐트코트에서 열렸다.

첫날 회의는 주 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등 주요 경기장 시설 실사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 숙박현황 안내, 도평방지 안내, 전라북도 홍보, 환영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익산종합운동장 종합상황실에서 행사의전 및 해외동포선수단 환영계획, 자원봉사모집 및 운영방향, 개·폐회식 운영계획, 주관 방송사 및 홍보 운영계획, 기타 분야별 운영계획 사전협의 등 전국체전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성공체전 개최 의지를 다졌다.

환영만찬에 참석한 정현을 익산시장은 "올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익산시에 방문한 선수와 임원단 및

시·도 체육관계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천년송결 아름다운 익산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기에 계시는 시도 체육관계자분들도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쏟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전국체전 사전대회로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39회 전국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와 제23회 전국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올해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어린이집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 보고하라”

문 대통령 “복지부, 해결책 세워  
다음 국무회의 안전 상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통학차량 사고와 교사의 어린이 학대 등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타타임에서 “복지부에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 안전으로 상정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통학차량과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오는 등 어린이집 사건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없을 정도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이불을 덮어씌워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의료가기 분야 규제혁신안 발표에서 언급한 ‘포괄적 네거티브’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모든 의료가기 사후규제 아나  
안정성 확보기만 한정”

문 대통령은 “사전허용, 사후규제는 모든 규제개혁과 혁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한정된 문제”라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가기의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대변인이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가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 안전무시 더이상 NO... 전북도, 안전보안관 발대식

전북도가 생활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안전보안관 증표 전달 후, 대표자 선서, 안전무시관행 근절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도에서는 도와 14개 시군, 교육청, 노동청, 경찰청,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선추진 7대 과제는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이다. 특히, 전국 최대 600여명의 안전보안관을 임명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등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자는 다짐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흘려버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고, 우리 이웃들에게서 안전불감증이 사라질 때까지 도와 안전보안관이 함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